

KB STARS Magazines

제 12호

《5라운드 리뷰》

"KB스타즈 배구단,
이기는 방법을 배워라"

《특집》

"KB스타즈의 가족으로
산다는건"

《이경수 선수 은퇴식》

"이경수, 그대는 내 마음의
영원한 레전드"



[6R KB경기안내]

02/14(일) vs 우리카드_서울

02/17(수) vs 현대캐피탈_구미

02/22(월) vs ok저축은행_구미

02/27(토) vs 대한항공_구미

03/01(화) vs 한국전력_수원

03/07(월) vs 삼성화재_대전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KB 스타즈 배구단, '이기는 법'을 배우라!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분위기 안좋으면 어떡해?”

작전타임, 강성형 감독은 선수들에게 말했다. 이기고 있는 순간에도 선수들에게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도 종료 휘슬이 울리기전까지 가슴을 졸이며 응원했다. 그로저의 공격 범실로 경기의 마침표를 찍자 강성형 감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선수단은 우승한 것 만큼 기뻐했다.

강성형 감독이 작전 타임에 말했듯 KB 스타즈 배구단 선수들은 이기고 있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쉽게 경기를 그릇치곤 했다.

이렇듯 언젠가부터 선수들은 이기는 방법을 잊은 듯 보였다. 시즌 초반 연패가 그 원인이었지만 후반에 접어들면서 약 5할의 승률을 기록하며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이다.

어느덧 V리그는 마지막 6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모든 구단과 5번의 경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다. 꽤 많은 경기를 모든 구단과 치렀지만 아직 이기지 못한 팀이 있다. 바로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삼성화재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2월 11일 5세트 풀세트 접전 끝에 악연을 끊어낸 것이다.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다음 시즌을 기약하고 선수들이 이기는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강팀에 승리가 필요하다. 돌아오는 17일, 22일 현재 리그 1,2위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승리의 축포를 터트려 '이기는 팀' 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KB스타즈의 '가족'으로 산다는건

- 부용찬 선수와 김민규 선수의
가족을 만나다 -

한결같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늘 가족의 울타리에서 아내의 따뜻한 포옹과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이 매일 그림습니다.
하지만 목청 높여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선수단과 함께 땀 흘립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1. 특별한 직업,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 남편/오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나.

부용찬 선수 아내 : 배우 선수의 부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애 때 부터 각오해 왔던 부분이라
지금은 괜찮아요. 다른 가족들 보다는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같이 못 있으니깐 그럴 때 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김민규 선수 동생 : 오빠가 프로 입단한지 2년차 인데, 자주 못봐서 아쉬쥬. 저희 집이 제주도라서 부모님이 오빠를 보러 오시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오빠를 응원하러 오시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가시기도 해요. 저도 얼마전에 오빠를 응원하러 구미
홀 경기장에 갔었는데 오빠가 시합장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오빠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경기장이라도 자주 찾아
가야 겠다는생각을 했어요.

2. 코트위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한다. 가족들에게 평소 어떤 성격인지 ?

부용찬 선수 아내 : 딸에게 최고의 아빠예요. 가끔 집에 오면 딸이랑 자상하게 놀아주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아빠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서 100점 아빠예요.

김민규 선수 동생 :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얼마전에 제 고민을 오빠한테 털어 놓았어요. 대학 편입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혼자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 처음으로 고민을 털어 놓았는데
생각보다 감동적으로 얘기해줘서 놀랐어요.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는생각이 들었어요.

3. 리베로라는 포지션 자체가 몸을 가장 많이 쓰는데, 경기를 보며 놀라거나 속상할 때는 없었는지?

부용찬 선수 아내 : 연애할 때 많았어요. 남편이 신인일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코트 밖을 넘어다니는 허슬 플레이가 많아서 마음을
줄이면서 봤어요. 작년에 무릎 부상도 정말 많이 걱정했고, 체력이나 몸을 위해서 항상 보양식으로 개구리즙을 챙겨주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몸을 조금 조심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 오빠 다음으로, KB스타즈 선수들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인지?

김민규 선수 동생 : 김진만 선수요. 수비형 레프트로서 키가 작은편인데도 공격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워업존에 있을 때에도,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도 좋구요.

5. 남편 / 오빠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용찬 선수 아내 : 이번 시즌 힘들었던 적 많았는데,지금처럼
하던대로, 남편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선수들도 다같이 힘내서
좋은 성적으로 이번 시즌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김민규 선수 동생 : 앞으로 오빠가 우리집의 가장 역할을
해야한다는게 마음에 걸리는데, 다치지않고 프로에서
선수 생활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빠를 서포트 해주고 싶고, 앞으로 오빠랑 사소한 이야기
라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경수, 그대는 내 마음의 영원한 레전드!

“끝과 시작 사이”

27년, 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경수는 이번 시즌의 각오가 남달랐다.

몇 시즌 간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부상을 어느 정도 치료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시즌 전 인터뷰에서 “KB 손해보험 스타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구단과 국가대표 팀에서 오랜 기간 한술밥을 먹었던 (권)영민이의 합류가 기대 된다.” 며 오랜 기간 묵혀둔 우승의 꿈을 꺼내보았다.

37살, 레전드도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다. 돌아올 시즌 준비 중 재발한 부상은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기록만큼 훈장과 같았다. 국가 대표로, 팀의 에이스로 수 천, 수 만 번의 점프와 스파이크로 몸이 성 할리 없었다. 시즌 전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에 말년에 접어들었고,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는 말을 남기며 선수 생활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생선배 강성형 감독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강단 있게 내린 결정으로 선수 생활은 ‘끝’ 이 났다.

53일, 떠난 그가 다시 코트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다.

2015년 10월 6일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는 말과 함께 은퇴를 결심한 이경수. 그의 선수생활 발자취는 ‘레전드’ 로 표현되었고 그가 떠난 자리엔 아쉬움만 남았다. 고맙게도 그 아쉬움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우리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었다. 언제까지나 국가대표 선수로 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 같았던 그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게 되었다. 아직은 트레이너라는 직책이 어색하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지도자로서 코트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지도자로 새롭게 ‘시작’ 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지도자 이경수는 끝과 시작 사이에 서있다. 은퇴는 선언했지만 은퇴식은 하지 않았고 국가대표 트레이너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며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가 선수로서 보여준 전설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지도자로서도 한국 배구의 이야기를 써가길 기대하고 있다. 배구 코트에 다시 돌아온 이경수!, 그대는 내 마음에 “영원한 레전드” 입니다.



“이경수 은퇴식” 안내

2016년 2월 27일!

“14년을 우리와 함께한 이경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의 은퇴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경기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관객들에게 “이경수선수 손수건 증정”
- * 경기 전, 선착순 100명에게 한하여 사인회 진행 (기념친필사인볼 제공★)
- * 매점소 옆 이경수 선수에게 보내는 편지 운영
- * 이경수 선수 기념품 100세트 한정판매 (기념 사인볼, 티셔츠, 머그컵)

- 자세한 내용은 KB스타즈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